Vol. 72
www.hwashin.co.kr

Hwashin News Letter

하늘타리

화신가족이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

Hwashin News Letter
Hwashin News Letter
Hwashin News Letter



2025 / 01

CONTENTS
2025 / 01

05 TOP & TOPIC

기 획 테 마 1 CEO 신년사 05
기 획 테 마 2 해외 법인장 신년사 09
INSIDE 화신 14

20 PEOPLE & TALK

기자의이슈톡 가을 단풍구경 in OSAKA 20
프로의 다이어리 한걸음씩 러닝에 자연스럽게 중독되는 방법 26
화 신 영 리 더 사시사철 나만의 4계절 보내기 30
오 피 스 절 친 날이 좋아서 함께해서 모든것이 좋았다 35
화신 인스타그램 39

41 VIEW & FUN

동 행 의 기 쁨 그때 그 시절, 여행 프로그램 41
Car트렌드분석1 트럼프의 재선,한국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45
트 렌 드 돋 보 기 노후준비 실천기 49
편 집 후 기 55



겨울나무
매마른 가지마다
겨울바람 불어와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저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서서
수백년을 지켜보며
당당하게 서 있다.

흐르는 세월속에
오늘도
푸른 새싹을 꿈꾸며
봄을 기다린다.

<겨울나무 中> 김영래作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일할 때
밝은 미래를 떠올릴 수 있고
그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은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제약 요건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CEO 신년사 中

CEO 신년사

전호후랑(前虎後狼)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으로 늑대가 들어온다”

화신은 창사 이래 수많은 부정의 시그널을 긍정의 시그널로 바꾸면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을 달려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긍정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금의 화신이 있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는 모든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화신 가족 여러분!

2024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기존 사업을 공고히 하고 BPC 사업 안정화와 글로벌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부지런하게 발로 뛴 한 해였습니다. 녹록지 않은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객사의 실적세에 힘입어 화신은 2024년 계획한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성공적으로 영천 하이테크파크 공장을 준공하여 BPC 제품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신공장 건설과 인도 푸네 공장 진출을 통해 미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정세는 끝이 보이지 않은 세계 분쟁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불확실성과 대통령 탄핵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또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전기차 시장은 캐즘을 넘어 그 둔화세가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이러한 이슈들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매년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굳은 의지로 맡은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신의 안정적인 한 해 운영과 대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분들께 네 가지 경영방침을 토대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 입니다.

급변하는 사업 환경 속에서 전기차 전환은 자동차 업계 내에서 주요 화두입니다. 화신도 지난해 하이테크파크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적으로 BPC 제품을 양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사업 진출을 통한 추가 매출 확보로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였으나 전기차 시장이 침체되고 양산 초기 품질 문제와 가격 경쟁력 확보 이슈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통을 겪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에 이를 빠르게 감지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주위를 둘러보면 주변 환경을 놓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눈이 모여 세상을 함께 바라본다면 다양한 시각으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파도치는 바다에서도 화신이라는 배가 안정적으로 순항해나갈 수 있도록 조타수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래 지향형 제조 경쟁력 확보' 입니다.

제조업에서 제조 경쟁력 확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숙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몸소 체득화하면서 키워온 제조 경쟁력은 과거의 성장과 수익 창출의 원동력이자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최근 제조 현장에는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되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또한,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을 구현해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신에게도 기술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도입한다면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검토에 검토를 거쳐 화신의 제조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자율 제조 구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품질 관리에 전문성을 더한다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품질 경영시스템 체계 운영도 가능할 것입니다.

'수평적 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정된 패턴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구성하는 사고 기법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생각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기존의 업무 방식에 젖어 쉽지는 않겠지만 생각의 전환을 통한 혁신으로 화신이 미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생산 거점 조기 안정화' 입니다.

근 몇 년간, 화신은 국내 공장 증축을 진행하면서 꾸준히 외형 성장을 이루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신공장 건설과 인도 푸네 공장 진출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신성장 거점 확보는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담보되지만, 질적인 성장인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사 차원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투자도 많았지만 앞으로의 투자도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실패한 투자는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고 지나간 결과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사업의 수익 구조부터 더욱 견고히 하여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더불어, 향후 신규 거점이 빠르게 정상 운영 궤도에 진입하여 조기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투자 최적화와 선제적인 비용 관리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0년 기업 기반 구축' 입니다.

2025년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오늘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축하함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의 100년 기업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화신이 있기까지 이뤄온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해 고객 확장, 지역 확장,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발굴을 통해 화신만의 성장곡선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대응하는 것은 이미 골든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입니다. 화신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한발 더 움직이며 앞으로의 100년 기업으로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화신 가족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지혜와 유연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예로부터 주변 환경에도 가장 능수능란하게 대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화신도 불확실성에 맞서고 스스로를 재정비하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호후랑(前虎後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으니 뒷문으로 늑대가 들어온다"라는 뜻으로 많은 재앙이 들이닥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제반 환경은 그 어느 해보다 불안정하고 앞으로 발생할 일들도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일할 때 밝은 미래를 떠올릴 수 있고 그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확신은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제약 요건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화신은 창사 이래 수많은 부정의 시그널을 긍정의 시그널로 바꾸면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을 달려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긍정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과 협력사 여러분들이 이뤄온 각고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포상 받은 모두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3일
대표이사 사장 정 서 진



인도법인
김 성 태 전무

인도법인 신년사

푸른 뱀의 해, 을사년 (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화신가족 여러분의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인도법인의 성장과 영속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화신 임직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지난해 인도법인은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성 창출법인구축을 목표로 매출증대와 더불어 수익성 개선, 에너지 및 폐기물 절감 등의 활동을 통해 년초 목표한 바를 달성하였으며 HMI 에서 생산되는 첫 전기차 SU2i EV (크레타 EV) 및 KINAY 차종의 성공적인 런칭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주재원들과 현지 직원들 뿐만 아니라, 화신의 모든 임직원 분들의 노력과 협력이 있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세계경제는 전년에 이어 한치 앞을 내다 볼수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도의 대.내외 환경 또한 녹녹치 않는 모습이 예측되고 있어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대/기아차의인도내수시장 점유율 하락 추세, 인도 로컬 OEM의무서운 성장세, 글로벌 OEM 의 신규진출등 많은 난관과 도전을 극복해야만이 화신그룹중점 해외생산 기지인 인도법인의 성장이 계속 될 수 있기에 금년에는 강화된 품질개선 활동으로 부진했던 고객 입고품질개선, KIN 품질 5스타 도전과 더불어 인도 푸네 신규 법인의 조기안정화등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인도법인은 2025년을 변화와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세계자동차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법인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중점활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객 다변화를 위한 영업활동 강화 최근 인도 완성차업체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완성차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인도 자동차 시장공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 완성차업체 및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구매정책과경쟁사 정보를 수집/분석 등의영업활동을 전개하여, 고객 다변화와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푸네법인의 조기 안정화 금년 10월 양산 목표로 추진중인 인도 서동부푸네 법인의 QU2 차종의 품질 및 생산 조기안정화로 빠른시일내수익창출법인으로 전환하겠으며, 아울러 인도 자동차 메카인 푸네지역글로벌 OEM 개척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신규라인 설치면적 확보 고객 다변화와 추가 아이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라인 설치면적 확보가 필수적 입니다. 이를 위해 라인복합 및 합리화, 유사 아이템의 MCP/MCS 일치화,양산라인CAPA 적정성 등을 통해 신규라인 설치 면적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고 변화무쌍한 푸른 뱀과 같이 오래된 허물을 벗고 반짝이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법인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인
김 영 돌 상무

미국법인 신년사

존경하는 화신 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뱀은 예로부터 지혜와 결단력, 변화를 상징하는 존재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성장을 이루는 해를 의미합니다.
우리 미국 법인도 이러한 기운을 받아 도전과 도약의 한 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과 노력을 다해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에는 모두가 함께 더 큰 성과와 행복을 만들어가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함께 도전과 기회의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 미국 법인의 비전과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를 넘어 성장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2024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는우리에게 상당한 압박과 도전 과제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미국 법인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유연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마련하여 더욱 견고한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둘째, 내실을 다져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겠습니다.
2025년은 내실 경영을 더욱 강화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가 절감과 수익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생산 혁신과 효율성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고객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ESG 경영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이제 ESG는 기업의 필수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법인은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생산 공정 도입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2025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함과 철저한 내실 다지기, 그리고 ESG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면 우리 미국 법인은 더욱 굳건한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사와 미국 법인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도전도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라질법인
김 해 용 상무

브라질법인 신년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화신 가족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도 브라질은 국내외 다양한 이슈로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습니다. 브라질은 룰라 정부 재취임 이 후 각종 재정수지 개선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오히려 브라질 경제는 심각한 재정 위기와 통화 가치 하락, 그리고, 여전한 고금리 정책에 따른 실물경기 악화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브라질법인은 2024년에 세웠던 흑자 지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 하였습니다. 올해 2025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대내외 불안요인들과 브라질 정치적 이슈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브라질 법인 모든 임직원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난관을 함께 헤쳐 나아가 최근 3년 간 지속해온 흑자 기조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흑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브라질 법인은 아래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 올해를 준비하려 합니다

첫째, “흑자 규모 확대를 통한 지속 성장 기반 구축” 입니다. 브라질 법인은 대내외 다양한 이슈들에 매우 민감한 법인 중 하나 입니다. 이에 브라질 법인은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하여 제조 경쟁력 확보 와 더불어 원가 경쟁력 확보, 고객사 영업활동 강화, 운영 효율성 재고 추진하여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달러화 차입금 및 채무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 활동을 통하여 대내외 요인에도 안정적인 경상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지인 주도 업무 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브라질법인 주요 고객사인 HMB(현대차 브라질)에서는 주요 고위 인사 및 요직에 현지인 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기존 한국인 중심 체계에서 브라질 현지인 중심 체계로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브라질 화신에서도 고객사의 운영체제 변화에 발맞추어 가기 위하여, 기존 한국 주재원 주도 업무 방식에서 현지인에 업무 위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부서 별 현지인 Key man 육성을 강화하여, 2026년 양산 예정인 신차(BC4b)는 법인 현지인력 주도 신차 Project를 추진하기 위해 개발 단계부터 현지인 담당자를 본사 사전 점검(생산/품질/설비/개발)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정립”입니다. 최근 전 세계 적으로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지면서 특히 종업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인식 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이 중 안전보건은 경영의 일부이기 이전에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인 안전의식을 가지고 개개인 스스로 안전을 지킬 때 기업도 지속가능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화신 브라질 법인의 모든 임직원들은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예방하겠다는 마인드로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정립에 앞장서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1994년 헤알화 출범 이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새해 브라질 경제와 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화신 가족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북경법인
전 재 학 상무

북경법인 신년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을사년 에도 화신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힘든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중동과 동유럽의 끊임없는 국가간 분쟁이 이어지고, 위안화 약세에 이어 불안정한 고객 판매부진으로 양적 성장과 수익성 확보에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의 굳은 의지와 단합으로 신규 수주를 이루어 냈습니다.

2025년에도 중국내 자동차 산업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합심 단합하여 위험을 즉시하고 준비된 역량으로 힘든 시기를 정면 돌파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철저히 무장된 위기 의식을 바탕으로 보다 더 나은 내일의 북경화신을 만들고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 산업 환경으로 변화됨에 있어 우리는 선재적 대응을 하고 미래 성장력 구축을 위한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신뢰는 물론 동반 파트너로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치열한 원가 경쟁이 가속화 되는 현 시점에서 **과거의 습관적 업무 방식이 아닌 생존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제품을 이루는 요소 뿐만이 아닌 업무방식, 전체의 프로세스에서 생존 진화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22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열정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혁신에서 확신, 성장을 통해 보다 더 나은 100년 기업의 항해를 위해 도전해 나갑시다**.

우리는 작지만 매우 강합니다. 가용한 자원을 적기, 적소에 투입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우리의 저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견고히 해 나갑시다.

끝으로 오늘의 북경화신을 위해 힘써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힘찬 격려를 드립니다. 북경화신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한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법인
김 태 곤 책임

베트남법인 신년사

모두의 가정에 바라는 일들이 성취되고,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푸른 뱀의 젊고 힘찬 기운을 담아 기원 드립니다.

24년에는 베트남 법인에서는 HCI 후속 모델인 신차 뉴 엑센트 BN7을 개발 완료하여 고객 공급중입니다.

그리고 BN7라인은 로봇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자동화 생산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7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특이 문제 없이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신 본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2025년 베트남 법인은 아래 3가지 사항을 중점적 운영 목표로 설정하고 실현해 가겠습니다.

첫째 BN7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24년은 BN7을 개발 양산하는 한해 였습니다. 그리고 25년은 양산 효율 개선을 통해 수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소형 SUV인 QXi2 를 추가 수주 개발 하겠습니다
현재 베트남 법인은 BN7 한 차종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판매 상황이 좋지 못하면 생산을 멈추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구매 고객 구매 성향 변화에 생산을 항상 대응 할 수 있도록 소형 SUV인 QXi2 를 추가 수주 개발 하겠습니다.

셋째 신규 고객 확보 및 사업 능력 향상에 대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탄콩화신은 현재 차체 BIW ASSY 용접만 운영 생산합니다.
향후 생산 능력 확대에 대하여 고객사 HTMV 그리고 합자사 탄콩 및 화신 본사와 긴밀히 협업하여 프레스 가공, 페인트 가공, 부품 조립등의 사업을 추가로 검토 발굴하여 탄콩화신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은 성장하는 탄콩화신 베트남법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 을사년 새해 화신과 베트남 탄콩화신의 무궁한 발전과 임직원님 가정에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INSIDE 화신

화신 / 화신정공 / 해외법인

HWASHIN NEWS _ 화신 뉴스

01 아워홈 식당 이벤트

10월 14일 언하동, 봉동, 하이테크파크공장에서 점심시간에 뽑기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꽝 없는 뽑기' 이벤트가 진행되며 직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 식사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기획을 하였다. 평소 단조로운 점심시간에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 기분 전환도 되고, 직원들끼리 이야기 나눌 거리도 생겨 좋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아워홈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직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기획 할 것이라고 밝혔다.



02 국민은행 지역사회공헌 기부금 전달

10월 22일 KB국민은행 경산공단종합금융센터는 우석장학문화재단에 지역사회공헌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전달식에는 우석장학문화재단 정서진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지역사회공헌 기부금을 후원 해주신 KB국민은행 경산공단종합금융센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였다.



03 화신 하이테크파크공장 준공식

10월 29일 하이테크파크공장 건립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준공식에는 ㈜화신 정서진 대표이사, 양금희 경제부지사, 산업통상자원부 김대자 무역투자실장, 윤승오 도의원, 김병삼 경제자유구역청장, 최기문 영천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관계 기관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축사 및 컷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다.



04 제11회 화신 R&D 테크컨퍼런스

10월 31일 제11회 화신 R&D 테크컨퍼런스가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듀얼 전후 조향 구동 솔루션을 적용한 전기차 플랫폼, 디지털 트윈을 위한 설계 및 해석 자동화, 배터리팩경량화 솔루션 개발현황에 대한 행사가 이루어졌다.



HWASHIN NEWS _ 화신 뉴스

05 2024년 소방합동훈련

11월 21일 언하동, 봉동, 하이테크파크공장에서 영천소방서와 합동훈련으로 화재 또는 자연재해 발생 시 사내 임직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방법을 직접 경험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훈련으로 소방훈련을 실시 하였다.



06 하이테크파크공장 경찰서장 방문

11월 25일 하이테크파크공장에 오용석 경찰서장 및 영천경찰서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홍보관 및 현장 투어를 진행하였다.



07 불우이웃성금기탁식 및 나눔명문기업 현판 전달식

12월 9일 화신에서 나눔명문기업 19호, 영천시 1호 가입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가입식에는 ㈜화신 류우성 상무, 최준희 책임, 최기문 영천시장, 손병일 경북모금회 사무처장, 손영삼 영천시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되었다. 최근 3년간 4억 3천만원을 기부하며 실버등급으로 가입을 완료하였다.



08 일본기업 투자자 방문

12월 12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투자환경 소개를 통한 부품, 소재 등 분야의 일본 투자자 발굴을 목적으로 일본기업 대표들이 하이테크파크공장에 방문을 하였다. 화신 류우성 상무, 이기동 상무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 및 현장 투어가 진행되었다.



HWASHIN NEWS _ 화신 뉴스

09 2024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수상자

12월 17일 2024년 노사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화신 노동조합 박겸훈 위원장이 2024년 노사문화유공 및 지역노사민정협력유공 정부 포상을 수여 받았다.



10 경북PRIDE CEO협회 커피차 지원

12월 17일~19일 언하동, 봉동, 하이테크파크공장에 경북PRIDE CEO협회에서 "출산·양육 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 경북 지역 모범 기업 시상·지원 및 홍보" 관련하여 커피차를 제공하였다.



1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주관 릴레이 간담회

12월 18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따른 자기규율 예방체계확립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윤수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심인섭 산재예방지도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화 신에 방문하였다. 정서진 ㈜화신 대표이사, 노동조합, 협력사 대표이사 등 안전보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율 안전 활동 논의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 이행의 애로사항 및 건의 등 자유롭게 얘기 나눌 수 있는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HWASHIN NEWS _ 화신 예산공장뉴스

01 희망 2025 나눔캠페인'에 성금 기탁

화신 예산공장은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성금을 기탁하였다. 예산군이 진행하는 나눔캠페인은 연말 연시를 맞아 관내 저소득 가정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2월 초부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준호 공장장은 화신 예산공장을 대표하여 예산군청을 방문, 2000만원을 기탁하였다.



HWASHIN NEWS _ 화신정공 뉴스

01 화신정공 창립 33주년 기념식

화신정공 창립 33주년 기념식이 2024년 12월 2일 화신정공 1공장 본관 지하 강당에서 열렸다.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표창 수여식, 정서진 사장님의 기념사, 사훈 제창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념식에는 장기 근속 및 우수 사원, 관련 표창수상이 있었다. 연구팀 전진호 책임(장기근속 30년) 외 16명, 임동길 책임 외 4명이 우수 사원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창립 기념일 행사를 통해 화신정공 전 직원들은 소속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02 동절기 화재대비 소방훈련

동절기 화재를 대비하여 화신정공은 11월 27일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화재 시나리오 설명을 시작으로 소화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화기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화재발생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실습을 반복하였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03 2024년 노사문화대상 선정

12월 17일 김문수 고용부장관은 신뢰와 협력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 중 주식회사 화신정공을 '2024년 노사문화대상'으로 선정하였다.



HWASHIN NEWS _ 베트남법인 뉴스

01 VIMEXPO 2024 전시회 참가

탄공화신은 24년 10월 17~19일, 하노이 VIMEXPO 2024 전시회 참가하였습니다. TCHS에서 생산하는 차체 부품과 화신에서 공급받은 샤시, 알루미늄 암을 전시하였습니다.





02 24년 직원 체육대회

11월 26일 탄콩화신 창립 4주년 기념하여 체육대회 실시하였습니다.





HWASHIN NEWS _ 브라질법인 뉴스

가족의날 행사



10주년 기념 행사



가을 단풍구경 in OSAKA

글, 사진 설비관리1팀 양현규 주임



안녕하세요. 설비관리1팀 양현규 주임입니다.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가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3박 4일간 오사카, 이네후나야, 교토 등 다양한 일본의 여행지들을 방문하며 제가 경험한 것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가을마다 단풍 구경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번 가을에도 단풍 구경을 가려니 국내에서 유명한 곳은 이미 다 가보았기에 이번 단풍 구경은 좀 특별한 곳으로 떠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 단풍구경을 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DAY 1. 도톤보리

첫날은 오사카 도톤보리를 구경하였습니다. 8년 만에 오사카를 찾았는데 8년전 방문했을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 꽤 오랜만에 찾은 도톤보리였지만 어려움 없이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린 킨류라멘의 용은 꼬리가 잘려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라멘의 맛은 그때 그 맛이였습니다. 진한 국물에 맛있는 차슈가 듬뿍 들어간 라멘은 여행의 첫 음식을 장식하기에 안성맞춤 이였습니다.





그 후에 유튜브에서 유명한 야끼니꾸 집인 쿠이야를 갔는데 정말 정말 맛있어서 오사카를 여행하신다면 꼭 가보시길 추천할 만한 맛집이였습니다.





DAY 2. 이네후나야



둘째 날은 일본의 어촌마을 이네후나야에 다녀왔습니다. 이네후나야는 일본 교토를 찾는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다만 꽤나거리가 있고 교통편이 많지 않아 렌트를 하거나 기차와 버스를 환승하며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는 차를 렌트하여 이동을 했는데 오사카에서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었고, 여행을 마치고 교토로 갈때도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이네후나야에 도착하고 제가 느낀 감정은 분명 처음이지만 어딘가 낯익은 풍경이라는 것이였습니다.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보며 보았던 장면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였습니다.



이네후나야의 이네는 지명이고, 이네만의 해안선에는 후나야라고 불리는 건물이 약 230채 정도 줄지어 있습니다.

후나야는 원래 배를 바다에서 끌어와 비나,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배를 보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어업이 활발했던 마을이였던 만큼 수많은 후나야들이 이네후나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가이드 투어도 있었던 만큼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해당 투어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가이드 투어는 이용하지 않고 한적한 어촌 마을을 거닐며 다양한 후나야와 일반 주택들을 구경하며 일본 만화 속 한 장면에 들어온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네후나야를 구경하고 저희는 이번 여행의 목표였던 단풍구경을 하기 위해 교토로 향했습니다

DAY 3. 기요미즈데라



대망의 셋째날 저희는 일본 여행의 최종 목표였던 단풍 구경을 하기 위해 기요미즈데라로 향했습니다. 11월 중순의 교토 날씨는 춥기는 커녕 더워서 아우터를 벗어서 들고 다닐 정도로 따듯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단풍이 많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예쁜 풍경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만큼 사람들이 매우 많아 혼잡 하긴 했지만 가을 단풍들과 함께 어우려져 있는 기요미즈데라의 건물은 그것을 잊을 정도로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기요미즈데라의 유명한 포토존은 엄청난 인파들로 둘러 쌓여있어 줄서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기요미즈데라를 보고 느낀점은 울창한 숲과 자연이 만들어낸 절벽위에 위치해있어 4월은 벚꽃, 11월 말은 단풍으로 매우 유명한 편입니다. 이미 사보가 나갈 때쯤이면 가을은 다 지났겠지만 2025년 신년 봄에 벚꽃을 구경하러 떠난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기요미즈데라 사찰안에는 지슈진자라는 신사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오토와 폭포수를 마시면 건강과 더불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는 만큼 기요미즈데라를 가신다면 꼭 들러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기요미즈데라를 구경한 후 니넨자카와 산넨자카를 구경했습니다. 아무래도 늦은 시간대이다 보니문을 닫은 상점들이 많았지만 그렇기에 더욱 고풍있는 풍경을 구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늦은시간이였던 만큼 사람들은 적었고 어둠은 더 짙어져 옛스러운 목조 가옥들과 고즈넉한 풍취를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3박 4일간의 교토 여행이 끝났습니다. 3박4일간의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오사카, 이네후나야, 교토 세 곳을 다양하게 방문해 보며 일본의 다양한 문화들과 다양한 음식들 그리고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2025년 신년에 여행갈 곳을 찾고 계시다면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 보신다면 어떨까요.



한 걸음씩, 러닝에 자연스럽게 중독되는 방법!

글, 사진 품질기획팀 신지훈 주임



작년에 이어 2025년에도 러닝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러닝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러닝을 즐기는 모습을 SNS에 공유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점과 다른 운동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은 점이 맞물려 신규 러너들의 유입이 대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러닝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러닝의 인기가 확산되었습니다. 미디어의 노출은 러닝 돌풍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러닝의 인기가 지속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신체적 건강, 정신적 안정,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러닝이 단순히 유행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아직 러닝에 관심은 있지만 시작이 두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러닝에 스며들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부상 대비 스트레칭

러닝을 지속적으로 즐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상 없이 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전후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면, 러닝 중 부상 위험을 줄이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 소개할 동작들을 숙지한다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러닝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러닝 전 - 동적 스트레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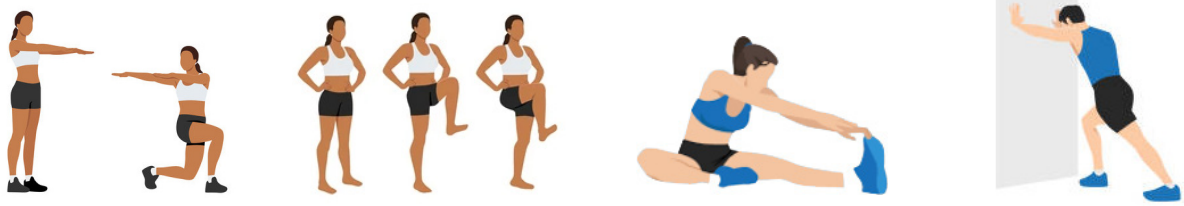
움직임을 통해 근육을 늘려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스트레칭으로, 빠르고 반복적인 동작이 특징(좌우 15회 반복)

- 레그 스윙 : 손을 고정된 물체에 대고 다리를 앞뒤, 좌우 또는 앞뒤로 차올리며 가동 범위를 점차 늘리기
- 런지 트위스트 : 런지 자세에서 앞쪽 다리와 같은 방향으로 상체를 트위스트 하기
- 힙 서클 : 엉덩이를 크게 원을 그리며 엉덩이 부분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회전하기
- 하이 니 : 무릎을 번갈아 가며 가슴 쪽으로 최대한 높이 올리기

러닝 후 - 정적 스트레칭

고정된 자세로 운동 후 피로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으로, 느리고 깊은 동작이 특징(좌우 20초 반복)

- 햄스트링 스트레칭 :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상체를 숙여 발끝으로 손 뻗기
- 종아리 스트레칭 :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고 발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종아리 늘리기
- 엉덩이 스트레칭 :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로 올려 앉고,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이기
-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 서서 한쪽 다리의 발목을 잡고 무릎이 몸통과 평행하게 유지되도록 뒤로 당기기



2. 즐거운 러닝 환경 만들기

더워서, 추워서, 피곤해서 등 온갖 핑계를 대며 운동을 포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이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퇴근 후 침대에 누워 유튜브 보는 재미만큼 러닝을 즐길 수 있을까요? 조금씩 러닝에 익숙해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환경을 조성해 보세요.

다양한 러닝 장소 모험

매일 같은 장소에서 러닝을 하다 보면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경로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스의 변화를 느끼며 다양한 곳을 모험하듯이 러닝을 즐긴다면, 한층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유명한 러닝 코스를 탐색해 보세요. 새로운 풍경을 즐기면서 운동하는 것은 더 큰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러닝을 하면 지루함을 덜어내고,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다양한 러닝 장소 모험

* 대구 러닝코스추천(무료 주차장)
- 신천둔지(동신교 지하차도 옆 *지도표시 X)
- 강정고령보(디아크문화관주차장)
- 두류공원(두류공원1~4공영주차장)
- 동촌유원지(동촌유원지 서편2 공영주차장 * 최초2시간무료)
- 대구스타디움(대구스타디움제2~3주차장)



2)러닝 패션으로 나를 표현

과거에는 기능성만을 고려한 러닝 복장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을 갖춘 '러닝코어룩'이라는 새로운 패션 트렌드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일상복으로 편하게 입으면서도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러닝화부터 모자, 베스트, 스마트워치, 심지어 물통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해 스타일리시함과 건강함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러닝을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러닝에 빠져드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3)소소한 보상

① 건강한 간식 러닝 후, 건강한 디저트로 자신을 보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예를 들어, 저당 과일이나 다크 초콜릿 같은 간식을 통해 맛있게 먹으면서도 칼로리를 과하게 섭취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시켜주어 더 나은 운동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② 나를 위한 선물 러닝을 시작하고 한 달간 성실히 노력했다면, 자신을 격려하는 선물이 훌륭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을 넘어, 자신에 대한 인정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다면, 그 성취감을 축하하며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③ 충분한 휴식 운동만큼 휴식도 중요합니다. 러닝을 하는 동안 근육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가 휴식을 통해 회복되면서 근육이 성장합니다. 또한, 심리적 회복 측면에서도 휴식은 필수적입니다. 매일 뛰어야 한다는 강박감은 오히려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해 운동을 즐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러닝 후에는 사우나나 마사지 등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러닝 커뮤니티 활용

러닝 커뮤니티는 러너들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정보를 주고받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활동적이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신에 맞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하고,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러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러닝크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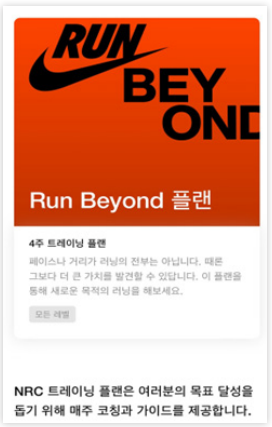
직접 다른 러너들과 만나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목표를 정하고 함께 러닝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함께 훈련하는 만큼 동기 부여가 되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며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친목 도모 없이 각자의 나이, 소속을 밝히지 않는 '느슨한 연대감'을 활용한 크루입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되, 과도한 사적인 소통을 피하며 적당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오직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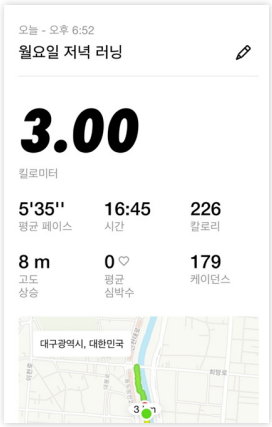
온라인 러닝크루

온라인 러닝 크루는 혼자 운동하거나 함께 러닝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개인 목표 달성을 돕고, 다른 사람들과 결과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동기 부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러닝 기록을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다른 크루 멤버들과 댓글이나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주로 러닝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훈련 계획, 러닝 기록 추적, 성과 분석 등 다양한 기능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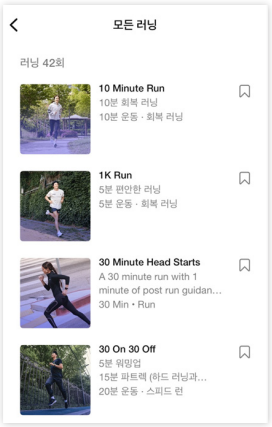
※러닝 어플리케이션 기능 * 출처: NRC(Nike Run Club) 어플리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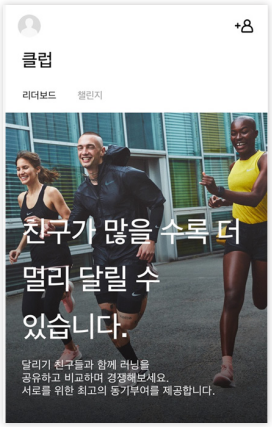
1. 러닝 플랜



2. 러닝 기록 추적



3. 러닝 가이드



4. 커뮤니케이션

사시사철

나만의 4계절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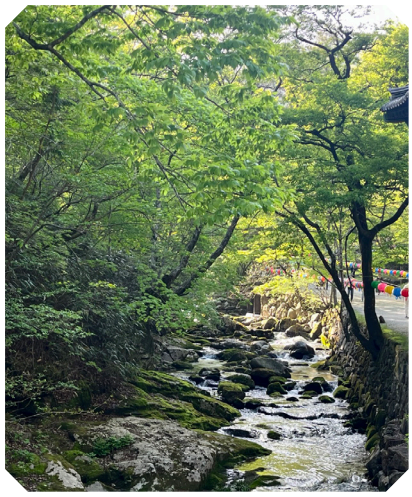
한국의 사계절은 각기 다른 매력과 특색을 지니고 있어,
모든 계절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풍성한 자연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듯 다르게 보내고 있을 사계절을,
제가 느꼈던 다채로운 한국의 사계절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레츠꼬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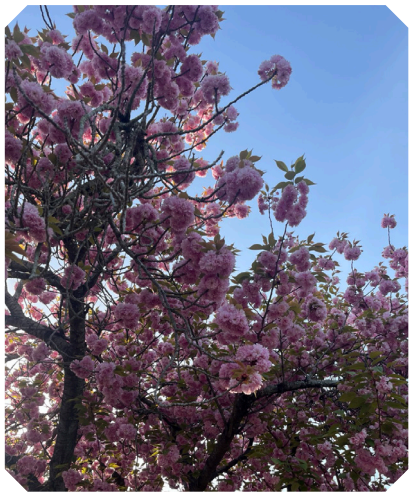
글, 사진 해외물류지원팀 조희진

봄

벚꽃과 함께하는 산책

봄바람에 벚꽃이 흩날리는 풍경은 감성을 자극하며, 따뜻한 날씨에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봄이 되면 한국 곳곳에서 벚꽃이 만개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올해 제가 즐겼던 벚꽃 명소를 소개합니다!





#고즈넉한 길 따라 가득 핀 매화꽃과 겹벚꽃, 순천 선암사

조계산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암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왼쪽에 흐르는 시원한 계곡을 따라 시원함을 느끼며 걷다 보면, 승선교가 보이고, 푸릇한 나무 그늘 속에서 부는 바람을 느끼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곳곳에 위치한 벚꽃 명소를 찾는 것도 하나의 재미랍니다.



여름

하늘을 날아보자, 패러글라이딩

여름에는 바다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이 생각납니다. 시원한 바다도 좋지만 시원한 패러글라이딩은 어떤가요?





#단양 패러글라이딩 #단양 알파인코스터

강사님과 2인 1조가 되어 하나둘셋 있는 힘껏 달려서 날아봤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예쁜 경치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멀미 있으신 분들은 강사님께 먼저 멀미 있다고 미리 말씀해주세요~~! 뱅뱅 돌기하면 어지럽거든요. 시간의 여유가 된다면, 단양 스카이워크랑 알파인코스터도 도전해보세요. 자연 지형을 활용한 알파인코스터는 정말 짜릿이라 표현하고 무섭다고 써보겠습니다.

가을하늘 공활한데 별보러 가자

가을

여름에는 바다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이 생각납니다. 시원한 바다도 좋지만 시원한 패러글라이딩은 어떤가요?





#보현산 천문대에서 본 하늘

가을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계절이자 높고 예쁜 하늘을 볼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구름 한점 없는 낮의 파란 가을 하늘도 예쁘지만, 무수한 별이 떠있는 밤의 하늘도 너무 좋아합니다. 별의 도시 영천, 보현산 천문대에서 밤하늘을 보는건 어떤가요?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다양한 별자리를 관측하고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겨울

통통한 굴이랑 조개랑

날이 많이 찬 겨울이지만, 방어랑 굴 통통한 가리비까지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계절이라 행복합니다. 패딩 두툼하게 입고, 예쁜 노을 보면서 낭만도 챙기고, 저의 뱃속도 든든하게 챙겼습니다!





경남 사천시 삼천포 거북이포차

삼천포대교가 보이는 곳이라 운치있고 포차감성 낭낭하게 조개구이를 먹을 수 있는 곳이라 날씨가 추워도 잘익은 조개구이 먹을 생각에 절로 흐뭇해지는 곳이랍니다. 연탄불이 조개를 은근하게 구워주어 정말 맛납니다. 기본안주로 쫀디기가 나오는데 쫀디기는 연탄불에 구워먹으면 또 얼마나 맛나는지.. 홍합탕도 나오고 떡볶이 느낌의 떡사리가 치즈와 함께 은박도시락에 나오는데 군침이 절로 흐릅니다. 머리위로 움직이는 사천케이블카 뷰도 끈내주고, 바닷가 근처라 싱싱한 해산물도 만나볼수 있는것이 삼천포만의 감성 아니겠습니까...

날이 좋아서 함께해서 모든것이 좋았다

입동을 지나, 찬 바람이 불던 11월 29일.
PM팀 주임 4인방에게는 좋은 날이었던,
입사 1주년 기념 여행 속으로 초대합니다

글, 사진 PM팀 강찬우 주임





11/28(목) 12:50
"주임 집합"

평소와 다름없었던 점심시간, 고요한 사무실 내부,
잠잠하던 휴대폰이 카톡을 알립니다.
허무현 주임의 카톡 한 줄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다가오는 곽문혁/이명우 주임의
입사 1주년을 기념하고자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이지만 다들 흔쾌히 수락하며, 여행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11/29(금) 17:00
"주말 잘 보내라"

팀장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임 4인방의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트라이얼(마트) 영천점으로 발걸음을 옮겨,
미리 계획한 식료품을 구매하고, 굶주린 배를 채우며 차에 탑승했습니다.



11/29(금) 18:00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네비게이션의 안내를 기점으로, 경주한옥펜타운으로 향했습니다.
27km / 35분 긴 시간은 아니지만, 각자 좋아하는 가수를 소개하고,
같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여행의 흥을 올리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11/29(금) 18:40
"꺽"

도착과 동시에 들리는 거위 울음소리, 주임 4인방의 도착을 환영이라도
하듯이 시끄럽게 울고있었습니다. 급하게 잡은 숙소였지만,
제법 운치 있고 분위기에 취해, 모두 만족하는 눈치였습니다.



11/29(금) 19:00
"숯 좀 넣어주세요"

금강산도 식후경. 공기 좋고 경치도 좋은 경주였지만, 먹보 4인방의 식욕을
주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해온 석화/꽃목살을 곽문혁 주임이 숯불에
굽기 시작했고, 다들 군침 흘리며 음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29(금) 19:20
"위하여"

막내들의 1주년을 기념하며 축하한다고 한 잔.
잘 구운 석화의 향이 좋아 두 잔. 육즙이 넘치는 꽃목살에 세 잔.
즐거운 여행을 기획한 허무현 주임을 위해 네 잔.
그냥 술이 마시고 싶었던 주임 4인방입니다.

11/29(금) 21:00
"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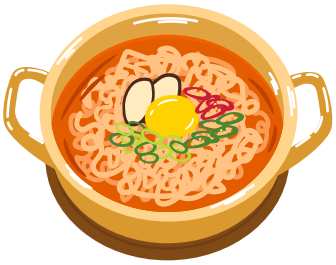
꼬마 고양이들이 펜션을 방문했습니다. 배가 고픈 건지,
음식 근처의 슬리퍼에 몸을 파묻는 고양이들이었습니다.
자칭 동물애호가 허무현 주임이 고양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1/29(금) 22:00
"장작 추매 할까요?"

무르익는 분위기, 매점에서 구매한 장작으로 불멍을 시작했습니다.
들어 가는 장작을 보며, 이런 저런 고민들을 털어놓다 보니,
어느새 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서로의 고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명우 주임이 장작을 추가 구매하려고 했지만,
추운 날씨 탓에 다들 시선을 숙소로 돌렸습니다.

11/29(금) 23:30
"라면 하나 끼리주이소"

고양이들과 노느라 밥을 많이 먹지못한 허무현 주임, 곽문혁 주임에게
라면 한 그릇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애 좋은 주임 4인방,
너도 나도 먹다 보니 5봉지를 비워냈습니다.







11/30(토) 10:00
"꺽~ 꺽"

퇴실 10:00, 밖으로 나선 주임 4인방을 반겨주는 거위 2마리.
다들 떠나기가 아쉬운지, 거위의 아침 식사를 배부르게 챙겨줬습니다

11/30(토) 11:00
"국밥 먹고 가지요"

경주에서 영천으로 오던 길, 아쉬움에 국밥 한 그릇 하자는
허무현 주임의 말에 다들 아쉬웠지만, 속 든든하게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12/5(목) 17:00
"축하합니다"

곽문혁/이명우 주임의 입사 1주년을 축하하며 떠난 기념 여행.
이 자리를 빌려, 1년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세요.
축하합니다.



Hwashin Instagram



#겨울#새우#사랑입니다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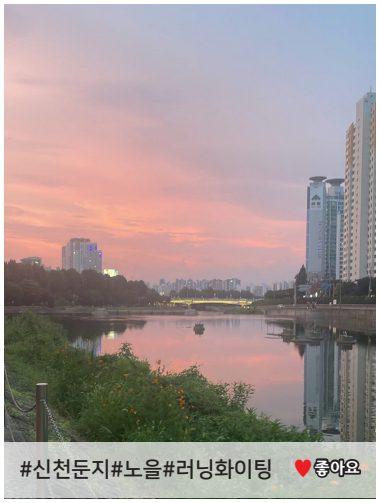
#겨울엔 제철회#회엔 소주 ♥좋아요



#대전엑스포다리#코스모스 ♥좋아요



#뷰맛집#이네후나야 ♥좋아요



#신천둔지#노을#러닝화이팅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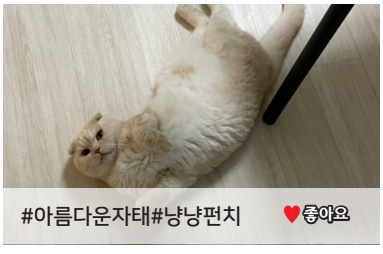
#선행연구팀 단합 #단체사진인데... ♥좋아요



#24부산불꽃축제#예쁘다 ♥좋아요



#농구#코비8 ♥좋아요



#아름다운자태#냥냥펀치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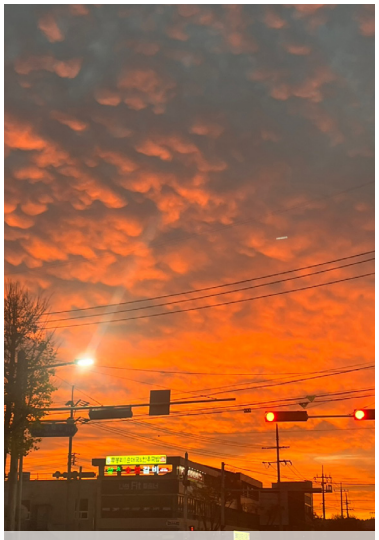


#영남대#화신#기업탐방#해외물류지원팀 ♥좋아요

Hwashin Insta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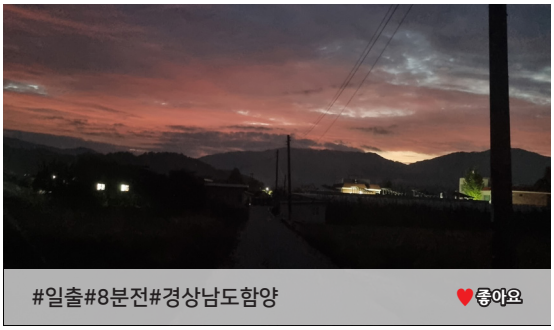
#울산#간월재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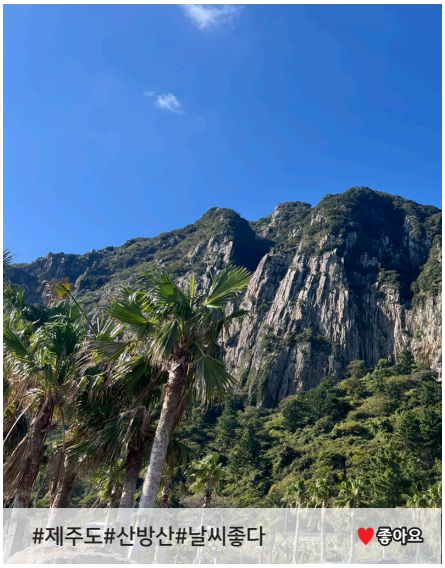
#아침출근길#퇴근길인줄 ♥좋아요



#장태산자연휴양림 ♥좋아요



#일출#8분전#경상남도함양 ♥좋아요



#제주도#산방산#날씨좋다 ♥좋아요



#영천술집#오뎅탕 ♥좋아요



#첫눈#서울 ♥좋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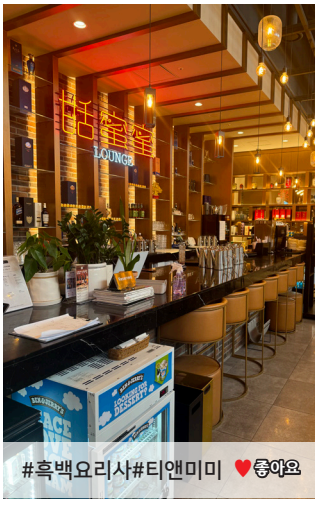
#한국술집#오뎅#먹고싶다 ♥좋아요



#흑백요리사#맛피아 ♥좋아요



#초간단#맥주#수육 ♥좋아요



#흑백요리사#티앤미미 ♥좋아요

그때 그 시절
여행 프로그램



글, 사진　노경팀 김한빈 주임

15년 전쯤, 상영 시간에 맞춰 가족들이 모여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주말 오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때 우리들의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넷플릭스, 티빙, 유튜브와 같은 OTT가 대세로 자리 잡은 요즘은 매우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들이 좋아했던 여행 프로그램을 추억하며 소개하고자 합니다.

패밀리가 떴다



■ 방영 기간 : 2008.06.15 ~ 2010.02.14
■ 편성 : 매주 일요일 17:20 ~ 18:45(종영)
■ 출연진 : 유재석, 이효리, 윤종신, 김수로, 대성, 박예진, 이천희, 김종국 그 외 게스트 출연







대한민국 최고의 패밀리!
가족이 필요한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뜬다! 하루 동안 시골의 한 농가를 찾아가 주인 어르신들을 여행 보내드린 뒤, 1박2일 간 그 집에 머물며 일손을 돕고 각종 게임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모습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입니다.

시골의 정겨운 문화도 느끼고 어르신들을 여행 보내드리는 기획 의도가 당시에도 인상 깊었습니다. 1박2일 동안 게임, 잠자리 정하기, 인기투표, 농사일 하기, 아침밥 하기 등등이 프로의 주된 구성이다.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적인 장면만 50분 동안 보여주는 등 엠티 혹은 캠핑을 컨셉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평범한 생활상을 그리는 예능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시청률은 25%였고, 최고 시청률은 30%를 기록했는데 이는 각 출연진들의 독보적인 캐릭터로 인해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국민 MC로 자리잡은 유재석은 대성과 함께 '덤앤더머', 이효리와는 '국민남매', 게임에서 독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게임마왕' 김수로, 그런 김수로에게 항상 구박을 받는 '천데렐라' 이천희, 애교스러우면서도 살벌한 '달콤살벌 예진아씨' 박예진, 호랑이 같지만 항상 이효리의 말은 고분히 듣는 '펫국종' 김종국 등 아직까지도 보고싶은 출연진들의 조합입니다.

재 런닝맨에서 최강자로 뽑히는 김종국이 그 당시 별명은 '펫국종'이란 사실이 믿기 힘든 것 같습니다. 런닝맨을 아직까지도 즐겨보는 저는 '패밀리가 떴다'가 생각날 때 유튜브로 한 번씩 시청하기도 합니다.

1박2일 시즌1



■ 방영 기간 : 2007.08.05 ~ 2012.02.26
■ 편성 : 매주 일요일 18:10 ~
■ 출연진 : 강호동, 이수근, 은지원, 김종민, 이승기, 강호동, 김C









리얼 야생 로드 버라이어티를 표방하며 여섯 남자들의 좌충우돌 여행기를 그렸던 시즌1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국민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앞서 소개 드린 '패밀리가 떴다'와 동시간대 방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본방사수해야 할 지 매주 고민하고는 했습니다. 현재 가장 유명한 예능PD로 손꼽히는 나영석 PD의 초기작인 1박2일은 전국적으로 사랑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박2일'의 초기 컨셉은 복불복이며 1박2일 프로그램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복불복으로 비롯된 원초적인 웃음과 부담 없는 연출을 통해 성별과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시청자들을 확보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단순 여행이 아니라 전국의 특색 있는 관광지와 특산물을 소개하고, 해당 동네의 농어촌 주민 어르신들과 함께 참여형 컨텐츠를 진행하는 등 가족 프로의 느낌이 있고 한국의 정과 멋을 담아내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재미를 위한 예능을 바탕으로 하지만 무작정 웃고 떠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진지한 다큐의 분위기, 소소한 여행의 즐거움 등이 더해져서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이전 예능 프로그램에는 볼 수 없었던 오묘한 매력이 다가왔던 프로그램입니다.

분당 시청률이 51.3%를 기록한 박찬호 선수가 입수했던 2010년 방영분은 대한민국 예능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 대한민국 예능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박 2일'이 거쳐 간 여행지들이 유명해져 해당 지역의 관광객이 급증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1박2일' 멤버들이 다녀간 맛집을 방문하면 당시 사진이 장식되어 있곤 합니다. 시즌1만큼 인기 있진 않지만 시즌 4로 현재까지 방영하고 있는 '1박2일'은 대표적인 장수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빠!어디가?



■ 방영 기간 : 2013.01.06 ~ 2024.01.19
■ 편성 : 매주 일요일 16:50 ~ 18:05
■ 출연진 : 김성주, 성동일, 송종국, 윤민수, 이종혁외 자녀들







연예인을 비롯한 사회 유명인들이 자녀와 함께 오지 탐험을 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성장 스토리를 담아내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맞게 여행 초창기에는 아빠와 서먹한 모습을 보이던 자녀들이 회차가 지날수록 아빠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동일과 성동일 아들 준이는 여행 초반 출연진들 중 가장 대화가 적은 부자였는데 여행이 끝나갈수록 애정표현도 많고 장난치는 모습도 많아졌습니다.

'아빠!어디가?'에서 아빠들의 요리 대결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의 짜파구리는 윤민수 아들 윤후가 귀여운 모습으로 맛있게 먹고있었던 장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고, 현재까지도 김성주의 레시피로 사람들이 만들어 먹고 프리미엄 버전으로 '기생충'까지 출연하곤 했습니다. 10분만에 만든 김성주의 짜파구리는 다른 아빠들이 2시간씩 만든 요리를 모두 제치고 1등을 차지했었습니다.

현재는 10년이란 시간이 흘러 추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미와 감동을 잊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빠!어디가?'는 단순한 예능이 아닌 아빠와 아이들의 관계, 아이들의 순수함,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험난한 여행 속에서 아이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아빠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통해 세상을 배우며 부자, 부녀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한국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 2017년 영국 주간지 이코노 미스트 표지 中 ≫

글, 사진 선행연구팀 김준영 주임

2024년 11월 5일에 시행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친환경 정책보다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지원 축소, 정책 우선순위 변화 등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수출의 47.3%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존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출 증가율은 내연기관 승용차에 비해 비중은 낮지만 2019년 이후 2023년까지 연 88%에 달할 정도로 빠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자동차 시장은 우리 자동차 산업 및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지난 11월 시행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국 전기차 시장에 다양한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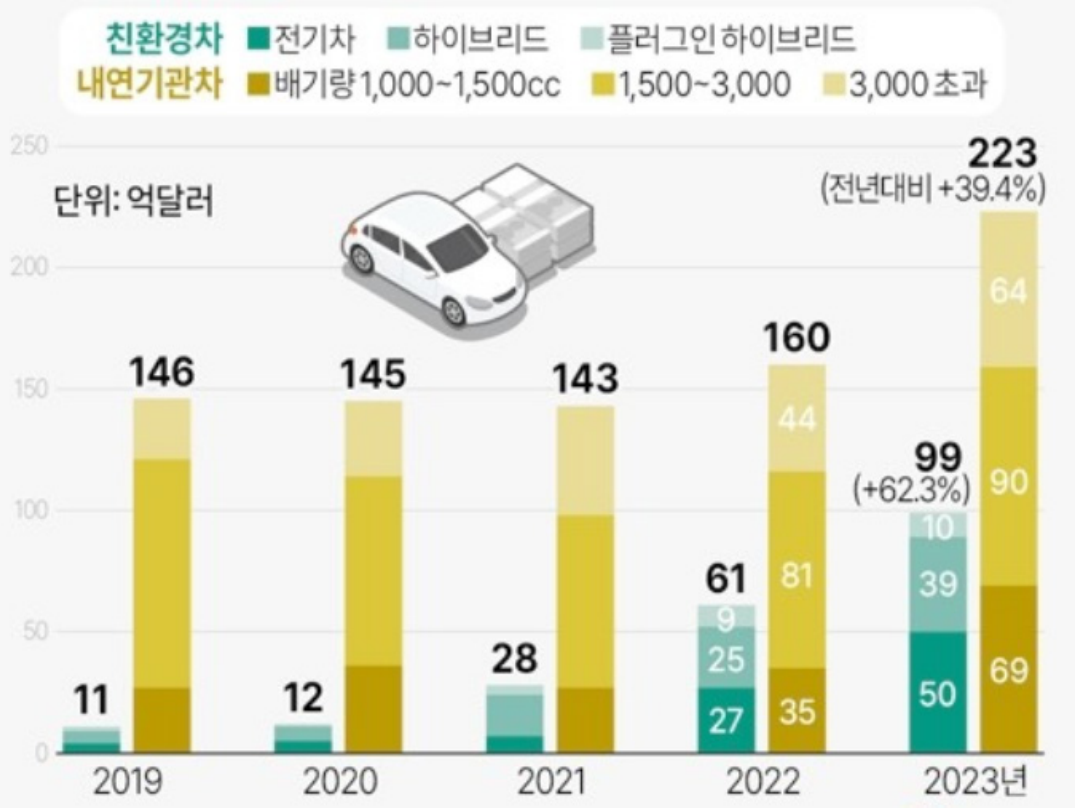
	분류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년 1-4월	연평균 증가율(%)
전체 (억 달러)	완성차	430	370	465	541	709	243	13.3
	(전기차)	24	39	56	82	143	44	56.2
	부품	225	186	228	233	230	77	0.6
	자동차산업	679	595	749	856	1,082	364	12.4
	(전기차 비중, %)	5.6	10.5	12.0	15.2	20.2	18.1	-
미국 (억 달러)	완성차	157	158	172	222	322	123	19.7
	(전기차)	4	5	7	27	50	20	88.0
	부품	62	55	69	80	81	29	6.9
	자동차산업	223	218	248	329	453	172	19.4
	(전기차 비중, %)	2.5	3.2	4.1	12.2	15.5	16.3	-
미국 비중 (%)	완성차	36.5	42.7	37.0	41.0	45.4	50.6	
	(전기차)	16.7	12.8	12.5	32.9	35.0	45.5	
	부품	27.6	29.6	30.3	34.3	35.2	37.7	
	자동차산업	32.8	36.6	33.1	38.4	41.9	47.3	

국내 자동차 산업 수출 및 대미 의존도 추이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DB)

관세 및 무역 정책 변화

세계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자율주행화, 커넥티드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 및 정부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한 자국 우선주의로 관세 및 무역 등 정책의 변화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임기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를 검토했던 이력이 있으며 이번 임기에도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완성차 수출 중 약 47%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관세 부과 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 GM의 경우 국내 생산 물량 중 약 92%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어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차 대미 수출액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다만 트럼프의 집권으로 국내 투자에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는데 중국산 부품 추가 관세 부과 등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및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중국 지리자동차 산하의 폴스타도 르노코리아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경 및 에너지 규제 완화

현 바이든 정권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인 환경 및 에너지 규제 완화입니다. 바이든 정권은 탈탄소 및 그린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IRA(Infation Reduc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CAFE(Coporate Average Fuel Economy, 기업평균연비)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미국 내 일자리 감소, 자동차 산업이 중국 전기차에 종속되는 원인이라 주장하며 환경 규제 완화 및 폐지, 화석연료 산업 부흥을 공표했습니다.

이는 경쟁 업체 대비 빠르게 자동차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는 국내 업체들에게 위 정책들로 인해 전기차 수요가 감소한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자동차 산업 전반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CAFE 기준 충족을 위해서 전기차 추가 공급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CAFE 철회 시 투자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IRA 폐지 시 전기차 수요 감소에 대한 리스크는 미국 내 신규 공장을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등으로 전환 및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 챗GPT 이미지 생성

따라서 친환경 정책 기조 약화에 따른 국내 자동차 산업의 부정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진행중인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전기차 관련 생산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관련 부품 업체들의 경우, 향후 전기차 수요 정체가 발생한다면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응 방안

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이 급변하고 있는 환경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은 무엇보다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하고, 수출 및 현지 생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혹은 내연기관차 등 어느 한쪽으로 전략을 집중하는 것은 위험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이 이를 주도하며 자체 공급망 구축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자동차 산업을 둘러싸고 미국과 외교적 대응 또한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사전에 미국 내 정책 정보 파악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요구됩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큰 과제를 준 것은 맞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시장의 다변화를 실현한다면 한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변화의 파도에 대응하고 협력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다가올 위기를 넘어 미래 자동차 시장의 선도자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미 대선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의 영향





글, 사진　　전략경영팀 이진홍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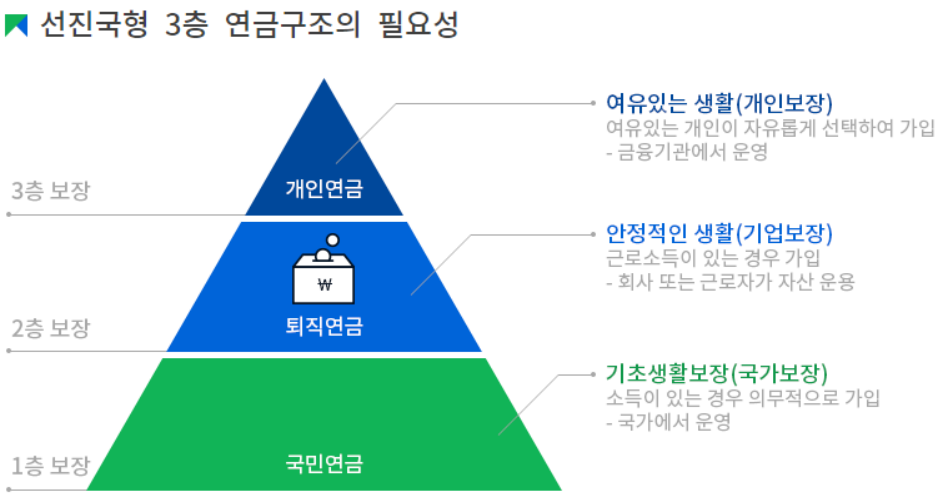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후 1년이 지나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했고, 1년 뒤 회사 퇴직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직접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시작으로 퇴직금 직접 운용을 결심한 계기와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공유하겠습니다. 아직 고민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1. 노후 준비 계기

저의 노후를 상상해 보니 뚜렷한 답이 없어 개인연금에 관심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예상 연금 월액 월 115만원'이라 적힌 국민연금에서 보낸 우편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편을 보고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가 궁금하여 알아보니 부부 기준 월 322만원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20년 환산 7.7억원, 30년은 11.6억원입니다. 흔히들 100세 인생이라 하니, 대략 95살(연금 수령 후 30년)까지 산다면 국민연금 제외 생활비로만 7.5억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통 노후를 위해 3층 연금 구조가(공적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필요하다 하며, 정부에서는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해 각자도생 할 수 있는 상품(연금저축펀드, IRP 등)을 만들어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른 어떤 금융 상품들보다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알았지만 선뜻 시작하기 어려웠습니다. 먼 미래보다 당장 필요한 결혼 준비, 내 집 마련 자금 준비가 더 급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월급의 10% 정도만 투자한들 상황이 크게 나빠질 것도 아니며, 세액공제 혜택(13.2%)을 이자라 생각하니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생각되어 시작했습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출처: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60

2. 연금저축펀드로 노후 준비

저는 연금저축펀드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원금 포함 4억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원금 1.2억원(연 400만원, 30년 납입)으로 4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230% 수익률을 내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장에서 개미가 230%의 수익률을 내기란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주식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와 관련된 영상과 책에서는 '복리'와 '자산 배분'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저 또한 투자 초기라 실현 가능할까 지금도 긴가민가합니다만 다음와 같은 원칙 세워 실행하고 있습니다.

(1) 적립식 장기 투자

1.2억원을 4억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 했지만, 저의 연간 목표 수익률은 7%(S&P500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생각보다 낮은 연간 수익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리 계산식[원금*(1+이율)^기간]에 저의 목표 수익률과 원금, 투자 기간을 대입하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 연 400만원(월 33.3만원), 30년 적립식 투자, 목표 수익률 7%

[(400*1.07^30 + 400*1.07^29 + 400*1.07^28…] = 약 4억원

욕심에 높은 수익률을 좇아 위험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적립식 장기 투자를 통한 복리의 효과를 믿고 적절한 상품에 월급 일부를 매월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2) 자산배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유명한 투자 격언이 있습니다. 연금 관련 책들을 보면 장기 투자의 과정은 평탄하지 않기에 자산 배분을 하여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주식시장 추종 ETF를 사되,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주식시장 지수와 음의 상관관계(Ex 주식 ↔ 채권)를 가진 상품들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해진 정답은 없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은퇴 전까지 투자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에, '100의 법칙' 을 참고하여 주식시장 추종 ETF를 다른 자산군에 비해 높은 비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은 기존 비율보다 크게 오른 상품은 매도하여 수익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떨어진 상품을 추가 매수하는 재조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 분	자 산 군
주식 70%	TIGER 미국S&P500 (미국주식)
	ACE 미국나스닥100 (미국주식)
	SOL 미국배당미국채혼합50 (미국주식&미국채 10년)
	KODEX 인도Nifty50 (인도주식)
국채 15%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미국채 30년 (환헤지))
	RISE KIS국고채30년Enhanced현금 (국고채 30년)
대체투자 10%	ACE KRX 금현물 (금)
현금성자산 5%	TIGER KOFR금리 액티브 (현금성자산)
수익률 : 연금저축펀드 25%, 퇴직금 DC형 8% (24.12.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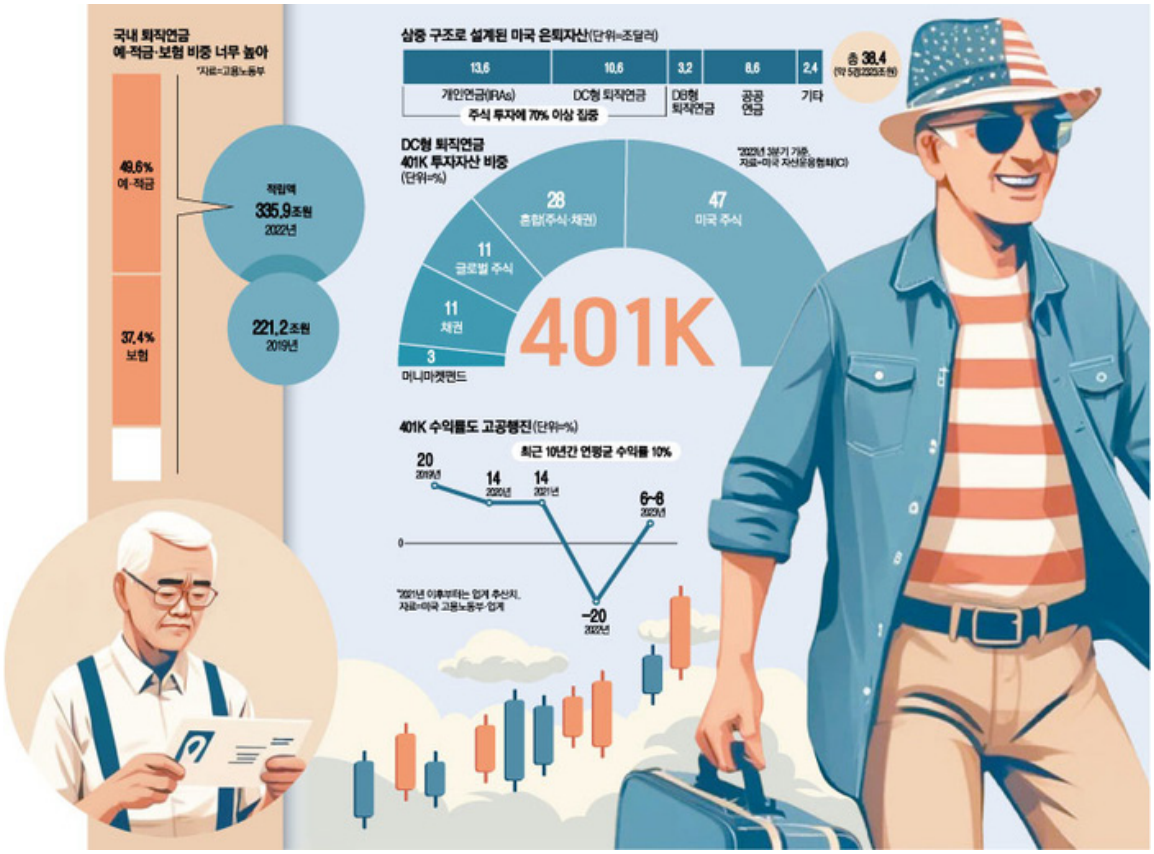
100의 법칙(100-나이) : 현재 자신의 나이에서 적절한 위험자산 (주식등) 투자위험자산 투자비중(%)

3. 퇴직금 DC형으로 노후 준비

연금저축펀드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저는 한 신문 기사를 읽고 퇴직금을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여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퇴직연금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22년 기준 미국 7.8%, 호주 6.7%, 일본 4.1% 그리고 한국은 1.9% 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열심히 일을 해도 수익률 차이로 미국인 은퇴자는 은퇴 후 해외여행 갈 때, 한국인 은퇴자는 일자리 찾으러 고용센터를 기웃거린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DC형 연금인 401k 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주식투자 비중이 71%라고 합니다. 반면 한국 퇴직연금 적립금의 80%는 예 적금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방치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고, 퇴직금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신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운용하는 DB형(확정급여형)입니다. DB형은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정해지며, 임금 상승률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임금 상승률이 기대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DB형, 임금 상승률보다 기대 운용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인이 운용하는 DC형이 좋습니다. 저는 기대 운용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여 DB형에서 DC형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경우 다시 되돌아갈 수 없기에 처음 노경팀에 문의할 당시 담당자인 최창혁 책임님께서 잘 고민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자세하게 설명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금저축펀드의 괜찮은 수익률을 맛본 저는 퇴직금도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고 싶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 당시 화신 퇴직연금 주관사는 '삼성생명' 한 곳이었지만 '현대차증권'도 가능하다고 책임님께서 언급해 주셨고, 보험사보다 거래가 편리하고 상품 선택권이 더 넓은 현대차증권에 DC형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01k : 1980년대 도입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연금의 하나로 확정기여(DC)형 기업연금제도를 말한다. 401K란 미국의 근로자 퇴직소득보장법의 401조 K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붙여졌다. 보편적인 미 근로자의 연금제도로 약 5000만 명이 가입돼 있다. 1980년 처음 도입됐으며, 1990년 후반부터 활성화됐다. 근로자가 월급에서 일정비율을 떼내고 회사도 일정 비율을 지원해 펀드를 만든다. 근로자들이 연간 최대 1만7500달러(약 1750만원)를 적립하면 소득공제를 받거나, 인출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적립액을 근로자가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상품으로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401k (한경 경제용어사전)

4. 맺음

세계적인 권투선수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에게나 다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링에 올라가 맞기전까지는.. ' 인생의 단맛, 쓴맛 다 맛보신 화신 선배님들께서 이 글을 읽으시고 충분히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공감합니다. 내일의 일

조차 한 치 앞을 못 보는 것이 사람 인생이라는데 하물며 30년 계획은 너무나도 불확실하다는 것을..

30년 기간 동안 경제 위기가 찾아와 폭락을 경험하여 멘탈이 나가거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투자하기 힘든 시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받는 월급이 현재 저의 몫만이 아니라 30년뒤 저의 몫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저의 은퇴를 위해 월급을 절약해서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금저축펀드, 퇴직금 DC형을 시작한 계기와 어떠한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유 드렸습니다. 아직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고한 책 및 신문기사]

1. 김성일(2024) 마법의 연금 굴리기.에이지21
2. 서대리(2023) 저축은 답답하지만 투자는 무서운 당신에게(직장인 자본주의 생존 테크트리). 알에치 코리아
3. 최만수/맹진규/나수지 기자 "퇴직연금 30년 투자, 韓 4억vs美 12억" 한국경제,2024.11.2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411881
4. 나현준 기자 "美 '연금 백만장자' 해외여행 갈때…韓노인은 일자리 찾으러 고용센터 기웃" 매일경제 2024.05.26
   https://www.mk.co.kr/news/stock/11025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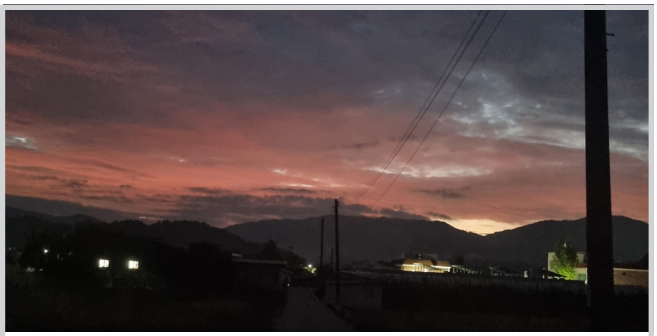
편집자가 선정한 BEST Cut & Writing

이달의 Best Cut & Writing으로 선정되신 직원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한 잔, 행복의 한 잔!

같은 부서에서 만난 직장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응원의 한잔과 기쁨을 나누는 행복의 한잔. 서로 웃어주고 다독이며 끌어주는 화신인이 되길 바라며 함께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더 깊듯이...

우리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동트기 전 새벽이 더 깊은 어둠속에 있듯이,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저 먼곳 동이 트는 곳에서 부터 봄이 오고 아침이 오고 있음을... 분노, 슬픔 등의 역경들이 치유되니 않은채 맞는 2025년 이지만 희망이 있음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화신영리더 中
해외물류지원팀 조희진 주임

가을 : 저는 구름 한점 없는 낮의 파란 가을 하늘도 예쁘지만, 무수한 별이 떠있는 밤의 하늘도 너무 좋아합니다. 별의 도시 영천, 보현산 천문대에서 밤하늘을 보는건 어떤가요? 겨울 : 방어랑 굴 통통한 가리비까지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계절이라 행복합니다. 패딩 두둠하게 입고, 예쁜 노을 보면서 낭만도 챙기고, 저의 뱃속도 든든하게 챙겼습니다!

트렌드 돋보기 中
전략경영팀 이진홍 주임

저는 연금저축펀드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원금 포함 4억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략)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와 관련된 영상과 책에서는 '복리'와 '자산 배분'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저 또한 투자 초기라 실현 가능할까 지금도 긴가민가합니다만 아래와 같은 원칙 세워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우동정 [사우들의 동정과 경조사 등을 전합니다!]



탄생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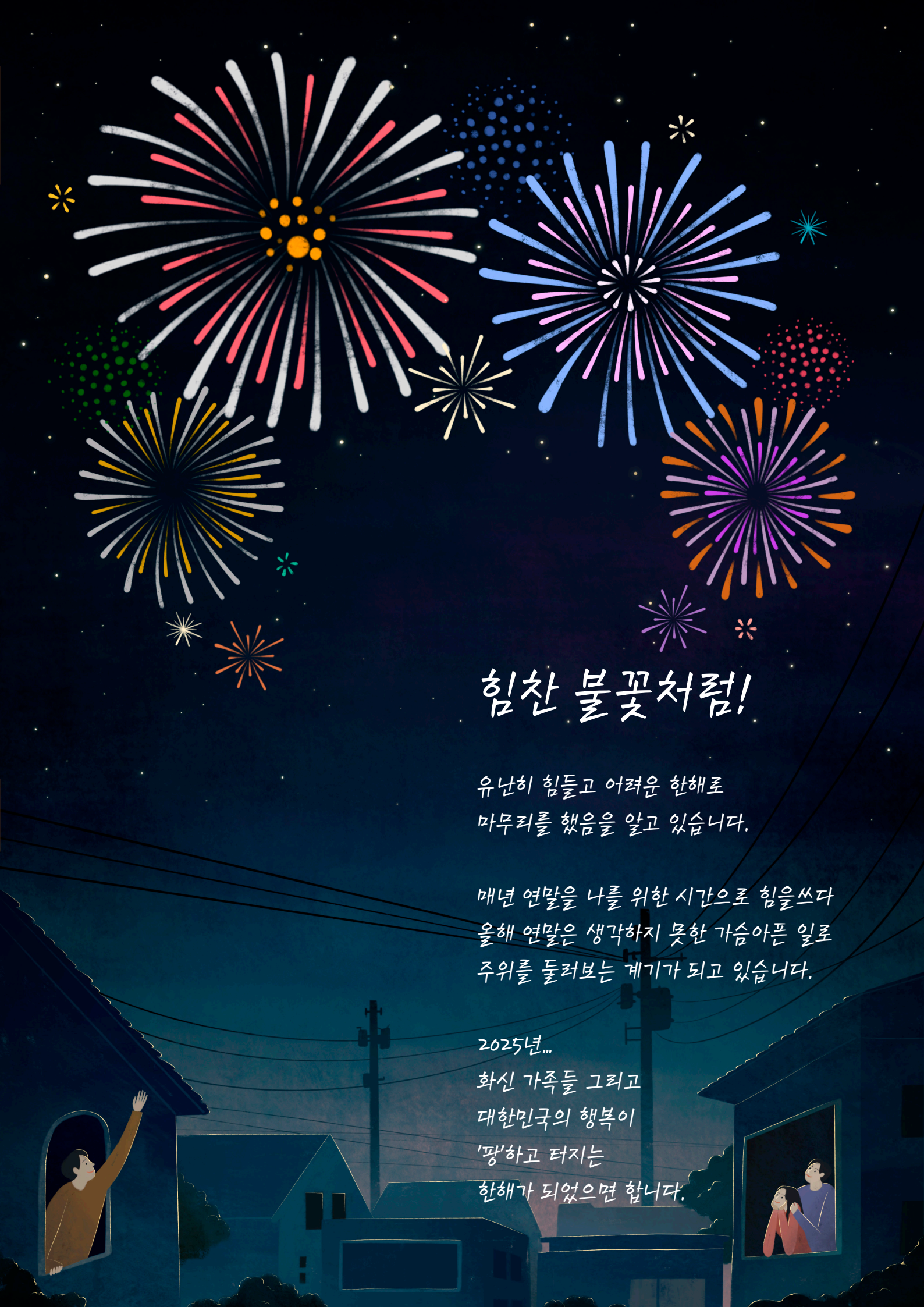
2024년 07월 22일	화신 생산1부 용접1반	윤태종 사원	득남
2024년 08월 09일	화신 물류관리팀	정대현 사원	득남
2024년 08월 29일	화신 생산1부 조립2반	하승우 사원	득녀
2024년 09월 03일	화신 생관물류팀	전진호 책임	득녀
2024년 09월 03일	화신 생산팀	이선미 선임	득녀
2024년 09월 10일	화신 생산2부 프레스2반	장문규 사원	득녀
2024년 09월 29일	화신 신차품질팀	최문환 책임	득남
2024년 10월 02일	화신 글로벌스트럭쳐팀	김창식 주임	득녀
2024년 10월 15일	화신 품질관리1팀	김수훈 사원	득남
2024년 11월 08일	화신 시작팀	최경민 사원	득남
2024년 11월 20일	화신 총무팀	박하준 책임	득남
2024년 12월 11일	화신 부품개발팀	서영윤 책임	득남
2024년 12월 16일	화신정공 업무팀	손정익 선임	득녀



결혼을 축하합니다!

2024년 09월 08일	화신 정보기술팀 노인휘 선임	결혼
2024년 09월 01일	화신 생산1부 프레스1반 김선봉 사원	장녀 결혼
2024년 09월 08일	화신 신차품질팀 이동영 선임	결혼
2024년 09월 22일	화신 총무팀 박동규 사원	차녀 결혼
2024년 10월 05일	화신 생산팀 보전반 김우정 사원	장녀 결혼
2024년 10월 13일	화신 물류관리팀 김치훈 책임	결혼
2024년 10월 19일	화신 생산2부 프레스2반 정안국 사원	결혼
2024년 10월 19일	화신 글로벌스트럭쳐팀 정동훈 책임	결혼
2024년 10월 27일	화신 생산1부 조립1반 이정호 사원	결혼
2024년 11월 09일	화신 신차품질팀 최주호 주임	결혼
2024년 11월 09일	화신 생산2부 프레스2반 오신호 사원	결혼
2024년 11월 10일	화신 생산2부 프레스2반 남정만 사원	결혼
2024년 11월 17일	화신정공 생산3반 현진영 사원	결혼
2024년 11월 16일	화신 노동조합 최희탁 위원장	장남 결혼
2024년 11월 17일	화신 생산1부 조립1반 이준석 사원	결혼
2024년 11월 24일	화신 생산2부 용접4반 김재환 사원	결혼
2024년 12월 28일	화신 생산팀 용접반 박준호 사원	결혼

원고를 기다립니다! 사보내 코너와 관련된 글은 물론 화신의 여러가지 소식들, 재밌는 이야기, 알리고 싶은 것 등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힘찬 불꽃처럼!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한해로
마무리를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힘을쓰다
올해 연말은 생각하지 못한 가슴아픈 일로
주위를 둘러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화신 가족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행복이
'팡'하고 터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늘타리

화신가족이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

HWASHIN

발 행 일 2025년 1월 13일 / 통권 제72호 **발 행 인** 정서진, 장의호 | **편 집 인** 장민준 | **발 행 처** 사보편집부
발 행 처 총무팀 **기 획 · 취 재** 총무팀 T.054-339-4520 Min-jun.Jang@hwashin.co.kr'

「하늘타리」 한울타리를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함께 나누고픈 화신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한울타리에 담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보기자단

총무팀 **장민준 주임** / 설비관리1팀 **양현규 주임** / 노경팀 **김한빈 주임** / 선행연구팀 **김준영 주임** / 해외물류지원팀 **조희진 주임** / 품질기획팀 **신지훈 주임**
PM팀 **강찬우 주임** / 전략경영팀 **이진홍 주임** / 생관물류팀 **전진호 책임** / 글로벌기획팀 **이동훈 주임** / 업무팀 **정다진 주임**